

주안에 News InChrist

주 . 안 . 에 . 교 . 회 . 뉴 . 스 . 레 . 터 .



07
July 2023
Vol.11 No.07

통권 107호

- 창립10주년 감사예배
- 2023년 임직예배
- 사역국 탐방 특집
- 교육부 / 새가족 소개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창립10주년 선교세미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은 온 성도들에게 '선교적' 사명감을 자각시켰다. 강사 엄경섭(왼쪽부터), 앤드류 김 선교사와 박기호 교수. <사진: 윤석중 기자>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

■ 창립10주년 선교세미나

지난 7월 21일(금요일) 저녁 7시 45분부터 7월 23일(주일)

예배까지, 그리고 7월 28일 금요일 저녁부터 7월 30일 주일예배까지 모두 세분의 강사를 모시고 주안에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선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주안에교회가 창립한 지 10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또 문을 열어주심으로 70분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되었고, 또 올해 안으로 더 많은 선교지를 품어 모두 100분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교회에서는 성도님들께 선교는 무엇이며 또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생하게 강사님들을 통하여 들을

으로 더욱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의 꿈을 품을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엄경섭 선교사는 미 종족 선교를 위해 온 가족이 순교를 하더라도 그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며 그 모든 민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간증을 들을 때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또 오랫동안 현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고 또 흘러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박기호 교수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소명, 약속, 순종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주안에교회가 더욱 많은 선교지를 품을 것을 권면 하였습니다. <3면에 계속> | 이광영 기자 |

하나님 뜻에 순종,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자

■ 창립10주년 감사예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라는 마음을 품고 첫 예배를 드렸던 주안예교회가 어언 10 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7월 30일 창립 10주년 예배를 드렸다.

최혁 목사는 어려움이 많았던 지난 10년을 말씀 하나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쫓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길 것을 다짐하며 권면했다.

특별순서로 남가주 장로성가단의 찬양이 은혜롭게 들려졌으며 풀러 신학대학교의 원로교수인 박기호 교수는 ‘소명, 약속, 순종’ (창세기 12:1-5절)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기호 교수는 설교를 통하여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알았던 자신의 젊은 시절의 신앙을 고백하며 마침내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5:31-46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여러분은 “75세의 아브라함처럼 언제 어디서 부르시든지 사명을 가지고, 지금 있는곳에서 빛과 소금



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증인이 되게 하셨다” 고 전하며 말씀을 마무리했다.

이어진 찬양과 박기호 교수의 축도로 창립10주년 감사예배는 은혜가운데서 막을 내렸다.

| 오희경 기자 |



■ 멕시코 단기선교

기도로 함께해 주세요

멕시코 단기선교를 위한 마지막 모임이 8월 5일(토요일) 새벽예배 후 ICY룸에서 있었습니다. 전체 미팅 후 각 파트별로 사역에 필요한 물품을 분류하는 등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제 8월 6일 주일예배를 드리고 60여 팀원들이 멕시코 현지로 출발해 3박 4일 산 비센테, 까말루 지역에서 다양한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농장 노동자들과 어린이 등 현지 영혼들이 많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2023년 임직예배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52명 ‘충성과 섬김’ 다짐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임직 감사예배가 하나님 은혜와 성도들의 축복 속에 지난 7월 12일 금요일 저녁 벨리채플에서 있었다.

지난해 공동의회를 통해 선출된 시무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등 총 52명의 피택자들은 1년간의 훈련과 교육을 이수하고 이날 임직하게 된 것이다.

찬양과 기도 후 권대근 목사(서부 아메리카 노회 서기)가 임직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누가복음 14장:25-35장을 중심으로 ‘세 가지 확립’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임직자들과 성도들의 선서 후 목사님

들과 시무장로들이 피택자들을 위해 안수예식을 베풀었다. 임직과 증정 후 이현보 장로, 최일 안수집사, 최승희 권사가 서약문을 낭독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충성과 섬김을 다짐했다.

임직자 선출 과정부터, 훈련과 임직예배까지 잘못된 관행과 형식을 일체 배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일꾼을 세워가는 주안예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지고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날 임직 받은 분들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시무장로: 공태용 양태섭 윤영섭 이현보

안수집사: 강대니 석광수 양승우 양윤석 왕승관 이카일 임병제 임종구 정준화 최일 최종선 한상호

시무권사: 강선 고은경 고한선 권한나 김수지 김순미 김지선 김크리스티나 김형선 김혜정 노정심 류명수 송혜나 신혜민 유연화 유제니 윤세희 윤유엔 윤혜란 이경민 이란희 이미선 이선민 이소의 이종진 이현숙 이해경 임종희 전해경 최남해 최성혜 최승희 최옥희 최정화 허제니 황인숙

| 조용대 기자 |

〈1면서 계속〉 2주 동안 계속된 선교 세미나에 주안에 많은 성도님들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빈자리를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고, 선교사님들의 현지 선교보고와 때로는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위험한 곳으로 나아간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선교에 대한 큰 도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 전체를 구원한 증언을 들을 때에는 큰 감동과 함께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습니다.

정창언 집사(12목장)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선교에 대해 몰랐던 새로운 사실과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고 또 앤드류 김 선교사의 말씀을 통해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혁 담임목사는 이제는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 주셨으므로 주안예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지를 향해 기도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주안예교회는 선교사를 돕는 것

으로 그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한층 성숙한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 선교사 방문기 (이선진 · 캄보디아)

받은 사랑과 섬김 현지인에 쏟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 이루신 일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늘 저희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단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주안예교회가 늘 궁금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교회 가족들은 얼마나 되는지.... 모든 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주안예교회가 있는 미국은 얼마나 큰지, 자연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든 게 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 파송교회가 교회의 행사나 세미나와 교육이 있을 때나 선교사님들이 쉬기 필요할 때 챙겨주며 지원하는 모습을 보며 늘 모든 결정은 우리가 해야 하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애태우며 기도하는 우리와 다른 선교사님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늘 부러웠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지만 이제는 교회에 소속되고 싶고 챙김과 돌봄을 받고 싶습니다..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온지 17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가족에 관심을 갖고 챙겨주는 주안예교회를 만나고 저희는 감사함으로 많이 울었고 행복했습니다.

선교지의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현지인들을 가족 삼아 살았지만 마음 깊은 곳은 아픔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주안예교회의 10주년 감사 예배로 저희 가족 6명 모두를 초청해 주신다는 말에 믿어지지 않았고 비행기 티켓을 선물 받고서야 저희 가족은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희는 상상만 하던 미국 땅을 밟고 한국과 캄보디아와는 달리 넓은 주차장과 확 트인 곳에 야자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보며 그리고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만나보는 최혁 목사님을 만나 뵙고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저희는 선교세미나만 생각하고 영적인 충전을 하며 은혜받을 생각만 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저희의 생각과는 달리 저희 가족에게 평생에 처음 있는 특별 휴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미국에 오랫동안 살아도 가보지 못한다는 곳들을 2주 동안 여행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위대한 자연 앞에 아무 말도 못 하며 경배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람이 만든 것들을 보며 사람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희는 처음 받아보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챙김에 놀랐고, 저희 아이들 또한 선교지에 살면서 방학이나 쉬는 날 친구네 집 외에는 갈 곳이 없어 집에만 있고, 늘 정해진 것과 “지금은 안돼 다음에”라는 말을 많이 들

어 눈치를 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해 부족함을 느끼면서 자랐는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주안예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온전히 저희 아이들의 말을 들어 주고, 인정해 주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가장 감사했습니다. 함께 하는 선교사님들도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가정을 힘들게 보셨는데 주안예교회의 초청으로 지금은 이 곳에서 기적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좌충우돌하며 실수하지만 주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던 저희들에게 그저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달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안예교회의 모든 가족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든 가족들이 서로의 직책을 내려놓고 차별 없이 섬기며 배려해 주시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 서로를 편하게 대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지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현지어로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언어가 다르기에 마음에 갈급함과 부족함을 느꼈는데 오랜만에 느껴보는

예배의 감동과 한국어로 맘껏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선교 세미나를 들으며 같은 언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눈을 감으면 주안예교회의 예배가 생각나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생각나고, 주안예교회 가족들의 얼굴들이 생각납니다. 모든 것을 확실히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제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뜨거운 공기와 땀이 나고 익숙한 캄보디아 말과 오토바이 소리와 여러 소리를 들으며 집에 돌아오니 옆집 아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옴 꼬래” (한국 이모~~) 하며 반기며 이웃들이 반겨주니 여기가 우리집 이구나~ 하며 편안합니다.

이곳에서 그동안 주안예교회에서 배운 사랑과 섬김을 현지 가족들에게 더 나누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여호와와 제사장이 되어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주안예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저희의 네 아이들 이삭, 이에덴, 이스라엘, 이드로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새가족 소개

■ 마더와이즈 소감

감동과 찢림의 말씀

어린 시절 부모님과 매일 드리던 가정예배에 힘입어 (평생 할 기도 그때 다했다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게을러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코로나를 맞고 또 몇 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강은영 집사

교회를 가자지 가자지 하면서 또 몇 개월...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시겠는 사인 (사랑하는 아들이 빗길에 전복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할 정도였는데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을 주셔서 무조건 그 주에 제일 가까운 교회로 달려갔어요. 바로 주안예교회로... 그런데 그날 최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1시간 넘도록 저는 펄펄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예배자로 돌아오길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또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로 설교준비를 하셨는지 (모든 말씀이 다 저희 가정을 위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새가족국에서 그날 단번에 새로운 가정이 왔다는 것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 해주셔서 등록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신 목장으로 들어가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국 분들도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최혁목사님의 말씀에 매일 매일 감동하며 가끔은 많이 찢려가면서 열심히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삶 속에서 믿음 추구

저희 부부는 포터 랜치로 이사를 오게 되어 교회를 알아보던 중 집에서 가까운 주안예교회에 자연스럽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김데이빗, 이가은 성도

처음 방문했을 때 남다른 규모에 놀랐었고 흔히 볼 수 없는 악기들과 함께하는 찬양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큰 교회에 오게 되어서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내심 걱정했는데 살뜰히 챙겨주시고 비슷한 나이대의 영거플분들이 많이 계시고 반갑게 맞아주셔서 저희 부부도 반기웠고 감사했습니다.

교회는 쭉 다녔었지만 주일만 지키는 것이 전부였었는데 주안예교회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그리되어 저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의의를 찾고 싶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주안예교회에서 성장해 나아갈 저희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치, 나의 존재 새롭게 인식

회복을 처음 시작할 때 신랑과 신부의 비유에 대한 설명이 어렵게 느껴져서 묵상을 하기가 힘들었고, 끝까지 집중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마더와이즈 '회복' 편을 마치고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번 훈련을 통해 나의 가치에 대한 나의 인식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다. 나의 가치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 받기 위해 애쓰고 바둥거리고, 때로는 좌절하게 되는 그 모든 에너지와 시간들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하셨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인지 제대로 인식하여 다시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 같다.



조아라 성도

유대인의 결혼제도에 대해 알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더 알게 된 것 같다. 예수님께서 나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무엇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길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과 함께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되었다. 전에는 천국에 대해 잘 상상이 되지 않고, 그냥 '천국에 가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만 생각했다면, 내가 들려 올라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이름을 부르시며 꼭 안아주시는 장면을 상상하니, 나를 만드시고 나와 내가 살아온 인생 전체에 대해 나보다 더 세세히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어떤 기분일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차 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강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유한한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더 깊이 깨달아졌다.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회개하고 결단하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자주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다른 이들에 대해 판결을 내려왔는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수시로 침범하며 살아왔던 것에 대해 회개하게 되었다. 나의 얕은 경험과 지식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그것을 또 다른 이와 얘기하며 공감과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는 주님의 권한을 침범하고 싶지 않아졌다. 나도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여인 '헵사바'로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 사역국 탐방



사랑과 정성을 담아 구워내는 빵

▶ 특별 취재: 나형철 기자

주안에교회를 몸소 세우신 하나님은 지난 10년간 매주 최혁 담임목사를 통해 영적으로 교인들을 성장시키고 예배 후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성도 간 교제를 하게 하사 주안에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베들레헴 사역’ (국장 김준억 장로, 팀장 배진호 장로) 을 2018년부터 시작하게 하셔서 맛있는 빵과 떡을 공급하게 하시어 매주 주안에교회 교인들이 나눠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더하여 ‘베들레헴 사역’ 이 ‘브니엘’ 과 협력하여 많은 선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교회에 헌금하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불쌍한 심령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동적인 ‘주안에교회 선교’가 시작될 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베들레헴 사역국의 활



동을 취재하면서 베들레헴 사역국 봉사자들이 헌신하는 귀한 모습과, 이를 나타내기를 거부하는 한 권사의 말대로 리더와 모든 사역자들이 어려움

을 인내하며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믿음에 감동하였다. 그리고 한 개의 빵을 내가 먹을 수 있기까지 9가지의 빵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되며 이를 위해

빵맛보다 향기로운 팀원들 한 마음 ♥

제가 베들레헴 사역국에서 봉사하게 된 동기는 연세 많으신 김준억 장로님과 주석희 목사님이 일하는 것을 보며 조금 힘을 보태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하고 보니, 힘을 보태겠다고 한 제 생각은 잘못 생각한 것이고 오히려 김준억 장로님은 저보다 건강하시고 열정도 저보다 10배는 더 많으신 것 같아 놀랐습니다. 그리고 김 장로님은 우리 사역팀의 리더로서 매주 2~3일 교회 나와서 그 주에 만들 모든 빵과 떡의 재료를 일일이 다 구입하시고 다른 봉사자들이 토요일과 주일에 나와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빵과 떡을 만드는 여러 과정을 살펴 주시는 데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사역을 하면서 어려웠던 일은 없었고 빵 만드는 일에 재미를 느껴 저에게는 그것이 은혜이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베들레헴 사역국에서 함께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이 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각자 맡은 일들을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며 감동과 보람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얼마나 더 오랫동안 할지 모르겠지만 건강이 허락되면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도 다른 사역국에도 골고루 돌아가며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또 봉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배진호 장로(팀장) |

■ 사역국 탐방



주일마다 성도들에게 작은 행복



란물이 뿌려진 빵을 적당한 온도로 달궈진 빵 굽는 기계에 넣어 굽는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구워진 빵을 꺼내 약간 식힌 후 희석한 설탕물을 빵 표면에 스프레이 하여 부드럽고 윤기 나는 맛있는 빵으로 완성한다. 빵 종류에 따라 굽는 방법과 시간이 달랐다.

* 포장: 다 구워진 빵을 포장하고 한 편에서는 준비된 재료로 참쌀떡을 만들어 포장하면 모든 빵 만드는 과정이 끝나고 브니엘로 보내져 교인들을 기다리게 된다.

베들레헴 사역국 봉사자: 김준억 국장, 배진호 팀장, 주석희 목사, 황인숙 권사, 노정심 권사, 노경민 집사, 조경일 집사, Joyce Bae, Joanne Bae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보았고 이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소개하려 한다.

* 빵 재료 구입: 금요일 오전 김준억 장로와 샌퍼난도 벨리에 있는 'Restaurant Depot'에 도착하였다. 먼저 굉장한 규모와 수많은 종류의 식자재가 쌓여 있는 데 놀랐다. 김 장로는 거의 매주 10여가지 빵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중 밀가루와 버터 등 대부분의 재료를 여기서 구입하고 또 다른 3 곳에서 나머지 재료를 더 구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 빵 재료 배합

금요일 오전에 구입한 밀가루 등 빵 재료를 오후에 제빵실에서 배합 비율에 따라 일일이 저울에 달아 적당량을 큰 그릇에 담아 섞었다. 이를 토요일에 반

죽할 것이라 한다.

* 반죽 및 빵 만들기

대개 토요일 오후에 대부분의 봉사자들이 모여 전날 배합해 둔 재료를 반죽하는 기계에 넣고 반죽한 다음 1시간 가량 숙성시킨 후 봉사자들이 함께 7가지 다른 종류의 빵을 만든다. 4시간 동안 500여 개의 빵을 만든 후, 빵들을 숙성기에 넣어 토요일 하루 저녁 동안 숙성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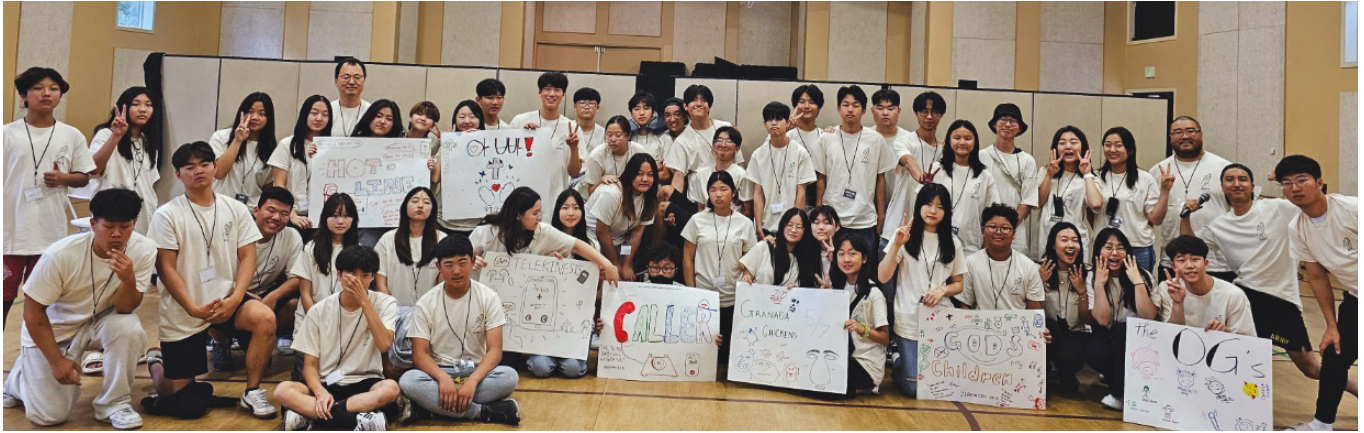
* 빵 굽기

주일날 아침 5시경에 봉사자들이 모여 빵을 굽기 시작했다. 단팥빵을 예로 들면, 먼저 토요일에 만들어 밤 동안 숙성되어 부풀어 오른 구워지지 않은 빵을 꺼내 한 사람이 검정 참깨를 빵의 표면에 짹 뿌린다. 다음 다른 사람이 설탕과 계란이 혼합 희석된 계란물을 참깨가 뿌려진 표면에 스프레이 한다. 계

■ 단골 손님의 한마디... (전정자 권사)

주안에교회 베들레헴 사역으로 인해 평소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히브리어로 '빵집' 이란 뜻인데, 말 그대로 사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맛있는 빵들을 만들어 주셔서 매주 아주 맛있게 먹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빵들을 만들기 위해 금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을 듣고 빵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베들레헴 사역으로 인해 많은 선교비를 보내고 있다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베들레헴 사역이 더욱 활발하여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늘 건강하시어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려 합니다.



"Call to Me"

■ ICY Summer Retreat '23

In a world filled with constant distractions, fast-paced living, and worldly, finding a moment of solace to connect with our Lord has never been more crucially essential.

On July 31st, ICC's ICY went up towards Mile High Pines Camp for a transformative four-day, three-night summer retreat titled "Call to Me," drawn from the powerful verse of Jeremiah 33:3,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will tell you great and hidden things that you have not known". This retreat provided ICY a unique opportunity to unplug from their daily routines, get rid of the cell phones, immerse themselves

in nature, and but most importantly cultivate a deeper connection with God while experiencing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The heart of the retreat lied within worship and sermon.

Through our passionate praise team and Pastor Ed's captivating sermon, ICY was invited to draw closer to God, engage in contemplative prayer, and the enter blissful spac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mall groups allowed us to form deep connections with one another, sharing their personal journeys, doubts, and moments of revelation. These bonds, forged in the crucible of shared spiritual experiences prove to last to what seems like a lifetime. But we know how touching and emotional

our God can get us to be, so our youth didn't forget to have fun with one another, experiencing cabin life, an open gym, cool swims on a hot summer day, rock climbing, zip-lining and even a water balloon fight.

The 2023 ICY "Call to Me" Summer Retreat stands as a testament to the transformative power of our youth coming together to meet God. We want to thank Pastor Ed for his bold messages and captivating delivery from the Book of Philippians, and as well as Pastor Chris and our leaders for pushing through exhaustion and making sacrifices so that ICY may call out to God and receive His grace. #GODDID

Minhyuk Chang

선교의 꿈을 동심 속으로

■ IC Kidz '선교특별수업'

주안예교회 10주년 특별 행사로 21일(금), 22일(토), 23일(주일)과 28일(금), 29일(토), 30일(10주년 기념주일)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세미나를 개최했다.

장년 예배와 같이 IC KIDZ 아이들도 선교세미나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2주 동안 총 6번으로 나누어 선교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 난 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선교의 거장인 Hudson Taylor, William Carey, Henry Appenzeller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셨던 사역지들을 한 곳, 한 곳 알아가며 크래프트도 만들어 보고 각 나라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서도 배우고 맛보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매우 귀중하고 유익한 날이 되었을 거라 생각된다.



선교 세미나를 통해 아이들도 한마음으로 교회의 큰 행사와 기념일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했고,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머지않은 미래에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는 선교의 동역자들로 성장해 나가길 꿈꾸며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 이성은 기자 |

■ 임직자 소감



‘성심껏 섬기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장로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현보 장로

께서 저를 택하신 데에는 저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으신 줄 굳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안예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 서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런 교회가 되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분이 되며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미련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을 따라 교회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장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겸손히 담임 목사님이신 최혁 목사님의 목회를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모든 성도님들을 성심껏 섬기는 참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도와 많은 격려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이 자리에서 있는 피택 안수집사 최일입니다.



최일 안수집사

어둠 가운데 있던 저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 교회 공동체의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무거운 책임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교회를 섬길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며,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 않고, 말을 삼가며,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리더십과 온 교회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키고, 이웃을 섬기는 구제와 봉사를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저의 자리를 지킬터’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하시고 나 같은 쓸모없는 자를 일꾼으로 불러 주셔서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최승희 권사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어 이제는 더 무겁고 두려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임직훈련에서 받은 것들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교회의 질서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를 존중하며 예수님께서 종으로 내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더욱 낮아져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의 권위를 위임받은 목사님과 당회, 공동체를 저의 자리를 잘 지키며 섬기겠습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중요한 언어인 진리의 말,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위로와 칭찬, 격려의 말을 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Yes와 No를 분명하게 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일과 맡겨진 것들의 감사와 두려운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웃 섬김을 인한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셨듯이 충성되지 못하지만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주위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선교사의 삶 (남수단- 박경호)

떡과 복음 나누기 10년, 더 큰 꿈을 향해...

남수단의 마리디에서 사역하는 박경호 선교사입니다. 저는 영국 Nottingham 대학에서 사회복지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미국 Texas Fort Worth 위치한 South-western Theological Seminary(남침례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남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인터셉트(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이집트에서 아랍어를 공부한 후 2011년 8월 수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단에서 3년간 현지 적응과 언어를 배우고 현지 교회를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단이 남과 북으로 나뉘지면서 당시 수도였던 Khartoum에서는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되었고 저도수단 정보부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추방당한 이후 남수단 전역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저는 많은 선교지를 가보았고 한국에서도 선교 목사를 하면서 여러 나라를 가보았지만 남수단 만큼 열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람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곳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왔고 떡과 복음을 같이 전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게 되어 한국에 돌아가서 농사에 대한 정보를 구하다 보니 2013년에 농업과 양계 자립 공동체 선교를 지향하는 보나콤이라는 단체와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보나콤 농사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농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에이커의 땅을 빌려서 농사와 양계를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남수단에서 사역을 하는 십 여년 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내전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지만 처음 마리디 지역에서 내전이 시작되어 유엔베이스에 난민으로 들어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반군들과 저희 사는 마을은 3키로 정도 떨어진 곳이라 안전이 위협 받을 때도 많았는데 낮 동안은 반군들이 숨어 있다가 밤에 산에서 내려와 소년병을 만들려고 동네 소년들을 잡아가고 양식을 탈취해 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남수단에 사는 것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벌레들과 사는 것입니다. 말라리아를 40번 이상 걸렸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것은 남수단 사람들에게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남수단 사람들은 보통 아침에 잠시 일하고 하루 종일 그늘에서 쉬니다. 그들은 한 달 동안 일하고 1년 동안 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새

벽 예배를 하고 있고 금요기도회, 주일예배가 있고 연초에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농한기 때는 여러가지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해 왔고 밤마다 성경을 읽고 영어를 가르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하루 스케줄이 새벽예배(5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형제들과 함께 일했고 저녁에는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농사 기술과 양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켰습니다.

형제들이 성장하면서 주변 지역의 어린이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시작한어린이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30명 정도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주 토요일 500여명의 아이들이 저희 공동체를 찾아 옵니다. 저희 공동체 형제들이 교사가 되어 가르치고 청소년부 예배를 통해 키워진 청소년들 70여명도 함께 교사가 되어서 지역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상기후로 농사가 안되어 굶는 사람들이 많아 아이들의 경우는 더 심해

서 예배들 드리고 나서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주는 저희도 기쁘고 아이들도 즐거워합니다.

저희 사역을 배우고 싶어 하는 현지 목사님들이 찾아 오면서 화요일은 목회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자료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목회자들이 배운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 주에 자신의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도움을

을 받게 되자 많은 현지 목사님들이 이 모임에 찾아 오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아프리카 역사상 늘 원조를 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재정적 독립과 영적 독립을 하면서 지역 사회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달려 오고 있습니다.

십 여년이 지난 지금 마리디 지역과 남수단 사람들에게 저희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많고 저희 삶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나면서 남수단 정부 관계자를 통해 주바 근처 바리 종족에게서 60에이커 되는 땅을 50년간 무료로 받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한다는 것은 개인, 종족, 나라의 문화가 충돌을 일으키면서 자신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합니다. 남수단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갔다가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선교사 되셔서 나의 삶을 변화 시키고 계십니다. 저희의 소망은 아랍어를 할 수 있는 남수단 사람들을 통해 수단과 여러 모슬렘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길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박경호 선교사는 주안예교회 협력선교사로 후원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집자주〉



이른 아침 물 주고, 흰가루병 잘 살펴야

장미는 대개 포기별로 3개월 정도 꽃을 피우다 꽃이 진후 다음 3개월간에 꽃이 진 가지에서 새 가지가 나와 꽃망울을 맺어 다시 꽃이 피기를 반복한다. 남 캘리포니아에서는 4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5월에 절정을 이루다 7월경부터 2~3 개월간 다시 꽃 필 준비를 하므로 이 기간에 다음과 같은 장미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물 주기

* 7월~9월엔 매일 물을 주도록 권장하며 10월~12월엔 2~3일에 한 번씩 반드시 주어야 건강한 장미를 키울 수 있다.

* 물은 가능하면 땅에 심겨진 장미는 오전 7시 이전에 주어 물의 증발을 방지하여 뿌리가 물을 많이 흡수케 하고, 화분에 심긴 장미는 오전 10시경에 물을 주어 12시경부터 화분이 햇빛에 데워져 뿌리가 상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 물을 줄 때 잎이나 가지에 물을 뿌려주면 잎에 남은 물방울들이 확대경 역할을 하여 햇빛을 한 데로 모아 잎이 화상을 입게 돼 검은색이나 갈색 반점이 생기고 장미가 약해지므로 물



은 반드시 뿌리 근처 흙에 뿌려 주어야 하고 뿌리 끝까지 물이 스며들도록 충분히 주어야 한다.

2. 거름주기

* 장미거름(Rose food)을 구입하여 거름 봉지에 적힌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적당량을 주도록 한다.

* 거름은 알갱이나 가루 비료보다 액체 비료가 좋는데 실수로 더 많은 양을 줄 때도 안전하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양을 주면 말라죽게 된다.

3. 병충해 방지

* 장미잎이나 꽃망울에 흰색 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흰가루병' (Powder mildew of rose)과 해충 중 '진딧물' (Aphid)이 가장 치명적인데 한

번 생기면 빠르게 퍼지므로 초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물 줄 때마다 잘 살펴 보도록 한다.

* 흰가루병을 없애고 진딧물을 없애는 약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병과 벌레 두 가지를 모두 방제하는 약품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장미 병과 해충을 없애는 약품 이름 - 브니엘 카운터에 비치 예정)

4. 가지치기

* 장미 가지치기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1,2월에 전반적인 가지치기를 하지만 꽃이 피는 기간에는 장미꽃이 핀 가지 끝을 잘라주는 것이 좋다.

* 가지 끝을 자르지 않으면 꽃이 핀 가지의 끝부분 첫 번째 잎과 줄기 사이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와 꽃을 피우므로 장미 가지가 위나 옆으로 퍼져 키가 너무 커지게 되어 균형이 안 맞고 그 장미 포기 전체가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잘라주는 것이 좋다.

* 꽃이 진 가지를 자르는 위치는 그 가지가 자라난 밑 동부터 3번째 잎의 1센티미터 가량 윗부분을 잘라 주면 튼튼한 가지에 탐스러운 꽃이 피게 된다.

| 나형철 기자 |

■ 브니엘을 섬기며/ 이성은 기자

2022년 팬데믹이 끝나고 성도들께서

다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OC채플 성도님들과 밸리채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교회가 만남과 교재로 '브니엘카페'는 그야말로 눈코 뜰새없이 바빠졌어요.

어느날 임용자 권사님께서 손목이 아프셔서 손목을 고정하는 압박대를 하시고 힘들게 봉사하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뭔가 제가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도 여기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쭙고는 남편 사이먼 집사와 제가 그날부터 섬기게 된 것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밖에서 보던 '브니엘 카페'는 커피를 내리고 성도님께서 찾으시는 음료나 차를 제공해드리는 곳인줄 알았는데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5갤런 넘는 아이스커피 통을 부엌에서 옮기는 일부터 창고에서 커피컵이나 다양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 등 남자가 할일이 더 많았죠. 그래서 저보다 싸이먼 집사가 브니엘에서는 인기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네요.

저희가 하는 주일날 봉사는 극히 일부분일뿐 주중에는 재고과와 후 컵이나 원두구입, 10가지 넘는 음료수들도 각각 구입처가 달라 사는 것도 수월치 않고, 요즘 같은 여름에는 아이스커피의 계절이라 토요일 오전에 5갤런 넘게 커피를



내려 통을 밀봉한 뒤 교회부엌 냉창고에서 차게 놔둬야 주일날 성도님들께 맛있는 아이스커피를 제공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느 봉사든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일부만 뵈 수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브니엘카페에 서있다면 정말 많은 성도님들과 안부를 주고 받을 수 있고 건강한 모습들을 뵈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한 권사님께서는 거의 매주 초코렛이나 과자, 떡, 케익 등 간식 거리를 챙겨다 주시며 "힘내요!! 집사님" "오늘도 고생했어요~하나님께서 기뻐하실거야~" 라고 응원의 반창고를 탁~ 하고 제 마음에 붙여주고 가십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응원의 메시지로 제가 얻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저의 한계를 아시고, 오히려 제게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언젠가 또 다른 곳에서 섬기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였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 음악산책/ 베르디 '오텔로'

자기파멸로 이끄는 열등감... 발전의 동력으로

1871년에 작곡한 오페라를 끝으로 시골에서 소일하며 은퇴한 것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던 베르디는, 우연히 읽게 된 희곡에 매료되어 15년 만에 다시 펜을 들어 오페라 <오텔로>를 작곡한다. 그의 나이 73세에 완성한 오페라 <오텔로>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오셀로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이 오페라는 뛰어난 음악과 작품성으로 베르디 말년의 정수를 담아낸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베니스의 귀족이자 원로원 의원인 브라반시오가 금지옥엽으로 키운 딸 데스테모나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텔로와 비밀리에 결혼한다. 오텔로는 베니스 정부가 고용한 전쟁 용병 출신 무어인(아랍계 흑인)으로, 당시 사회에서 주류에 속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과 용맹함으로 장군의 자리를 꿰찬 것도 모자라, 키프로스 섬의 총독이 되고 명망가의 여식인 아름다운 데스테모나와 결혼까지 하게 되자 주변의 시샘을 한몸에 받는 신세가 된다.

오텔로는 성공했지만 장군이 되기까지 백인 주류의 사회에서 술한 인종차별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열등감이 자리 잡게 된다. 이를 눈치챈 부하 이야고는 간교한 언어로 오텔로의 열등감을 자극하고, 질투에 휩싸인 오텔로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

해 주었던 데스테모나를 죽이고, 자신의 목숨마저 저버리는 파멸을 맞는다. 유능하면서도 성실하고 절제할 줄 알며, 냉철한 판단력과 안목까지 갖춘 그였지만, 모든 장점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질투 속에 매몰되었고, 합리적인 상황 판단을 마비시켰다.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경험으로, 아동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린이는 강하고 능력 있는 연장자를 보며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그 능력을 본받고 모방하고자 애쓴다. 동경하던 존재의 능력을 따라잡는 과정을 통해 자존감이 길러지고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간다. 그와 반대로 열등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 끝없는 자기 비하와 자존감의 상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열등감을 자기 발전의 동력으로 삼느냐, 열등감에 사로잡혀 파멸의 길을 걷느냐는 오롯이 자신의 몫이다.

하나님은 각자 다른 쓰임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흠투성이인 미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원망하며 탓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나의 모습 그대로 살아있음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이자 축복이다.

| 황성남 기자 |



미얀마의 '코리안 드림'

출구가 보이지 않는 군정과 계엄령 속 젊은이들의 꿈은 한국행, 취업해 돈 벌고 유학도 하기 위해선 한국어 시험 통과가 가장 큰 관문이다. 무더위 속 수도 양곤 시내에서 한국어능력시험 원서를 내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 미국 비자 받기 위해 서울 미 대사관에 줄을 서던 모습이 떠오른다.

| 사진: 미얀마 조용득 선교사 |



NEWSLETTER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이광영, 이성은, 이예스더, 이현영, 임용자, 조용대, 황성남(기자)

양영, 윤석중, 박민,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